



“이 돌고래는 무엇 때문에 폐사했을까”

어제 제주대-서울대 죽은 해양포유류 부검 교육
수태한채 그물에 걸려 폐사·뱃속 낚싯바늘 확인
병리학적 사인과 해양오염 연관성 등 규명 계획

어미 배에서 꺼낸 핏덩이의 불투명한 막(膜)을 거둬내니 부검에 나선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괭이 새끼가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은 19일 한림읍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에서 ‘해양포유류 부검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상괭이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대한 부검을 진행,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날 부검을 실시한 해양 포유류는 상괭이(2021년 12월 20일 발견), 인도태평양 상괭이(올해 3월 16일 발견·홍콩 등지 서식), 남방큰돌고래(올해 4월 29일 발견) 등 3마리다. 부검은 개복, 지방층 제거, 갈비뼈 제거, 심·폐 노출 및 관찰, 위·간·장 관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상괭이 부검에서는 태아가 발견됐다. 태아가 모습을 드러내자 학생들 입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길이를 재보니 36.5cm

였다. 갓 태어난 상괭이의 길이가 약 70c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상괭이는 임신 기간(1년)의 중반쯤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임신한 상괭이가 안정적으로 먹이를 공급받기 위해 제주 인근 해역을 찾았

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안강망 등 어선 그물에 걸려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인도태평양 상괭이의 위에서는 어른 손가락 만한 낚싯바늘 4개와 비닐 한 조각이 확인됐다. 여기에 다른 개체보다 체구가 작은 점까지 비춰보면 낚싯바늘 때문에 먹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부검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김병엽 제주대 교수는 “정확한 나

이와 사인은 향후 이빨 분석과 조직 검사 등을 통해 규명될 예정이다. 어느 정도 사인이 추측되기는 하지만 피부병이나 암, 기생충 등 병리학적 사인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이나 중금속 중독 여부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검교육에서는 제주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와 참돌고래, 상괭이, 바다거북, 상어 등 총 22개체에 대한 부검이 이뤄진다.

송은범기자



제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관계자들이 1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에서 죽은채 발견된 돌고래를 부검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변기에 물티슈 버리지 마세요”

하수시설 막힘 고장 원인
도, 올바른 배출 협조 당부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 등의 변기 투입으로 하수관이 막히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청정제주 환경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된 하수는 관로 4434

km와 펌프장 642개소를 통해 하수처리장 8개소(시설용량 25만8000t/일)에서 24시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비데용 물티슈, 여성용품, 음식물 등)등의 변기 투입으로 하수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거나 하수도시설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설치, 동물성 기름 배출 등으로 하수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요령을 담은 전단지 제작·배포하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부자 행세하며 여성에 접근 돈 편취

지법, 30대에 징역 1년 선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해 여성과 교제한 뒤 돈을 편취·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민수 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새벽 자신의 여자친구(34)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6회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는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피해자와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같은 달 25일 사이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물품을 파손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과 교제한 다음 돈을 편취·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육가공공장·폐기물 처리장 결사반대”

금악 주민들 도청 앞 시위
“허가 과정에 문제 있어
행정 책임지고 취소하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악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장과 육가공공장 설립을 결사반대한다”며 제주도에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육가공공장 설치 예정 지역은 건축계획심의구역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끼워 맞추기식 심의를 받았다”며 “건축허가 후 심의를 해 달라고 해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상 위법이니 심의가 불가하다고 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어 “육가공공장은 마을 중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어린이집과 주택들이 밀집돼 차량 진입도 어려운 좁은 골목 안이다”라며 “공장 설립 이후 찌꺼기와 각종 슬러지로 인해 하수구 막힘과 악취는 심해질 것이고 좁은 골목으로 큰 차량이

다니면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현장 방문을 요청한다”며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 행정이 책임지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제자리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장은 2020년 10월 19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됐고 같은 해 12월 16일 폐기물 처리사업 적정 통보, 2021년 9월 27일 건축허가가 났다”며 “독성 물질을 배출시키며 주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사업을 단 2개월도 안돼서 적정 통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폐기물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나 행동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앞으로 술 많이 취하면 징역 겁니다”

상습 공무집행방해 50대
제주지법 이색 판결 눈길
특별사항 ‘음주금지’ 명령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이색 선고를 내렸다. 일정 알코올농도가 넘도록 술을 마실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민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는 특별준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를 어길 시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에 처해진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1시40분쯤 제주도 소재 거주지에서 112신고와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묻자 “누가 신고했냐? 뭐 때문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왔냐”고 말한 뒤 경찰관을 향해 탁상용 거울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실형 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한 뒤 법정에 출석한 A씨의 아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진심인지 물었다.

A씨 아들이 “진심”이라고 말하자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사고를 친다. 특별준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해 취하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진정한 제주출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강력한 라인효과
높은 저항성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달팽이추출물 핵심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원을 제공함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The founder of granular water soluble fertilizer

Powerful

용량 : 20kg

NAVER DUM

코코리

검색

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농가작업인부 지원
(과수원 발작업)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